

투데이 칼럼

호감의 스피치 노하우

현대는 소통의 시대이며 이  
미지 시대, 디자인의 시대  
이다.

우리가 태어나서 운명을 다 할 때  
까지 사용하는 것은 말이다.

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 
바로 대화이다.

대화를 함에 있어 성공의 열쇠는  
'호감'인데 호감의 70%는 표정인  
데 잘 웃고 미소 짓고 귀 기울이는  
것이며 나머지는 외모와 옷차림 등  
이다.

대화할 때 첫째, 3곳을 실천하자.  
'종곳', '뿡곳', '지곳'이다.

대화할 때 항상 귀 기울이며, 항상  
웃고, 항상 공감하라는 것이다.

모든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 
알아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쉽게  
호감하고 공감하는 것이 사실이다.

둘째, YB(yes-but) 화법이다.

이 'yes-but 화법'은 '항상 내가 틀  
릴 수 있다'는 전제하에서 시작해  
야 한다는 것이다.

좋은 대화법, 맛있는 대화법으로  
는 너무 아는 척하지 않기, 상대의  
말에 귀를 기울이기, 전체적으로  
보고 말하기, 자기 권위만 세우지  
말기, 상대의 욕구 파악하고 말하  
기, 즉 5가지를 말하고 싶다.

부부간의 대화법에서도 남자는  
논리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자  
기를 남자로 봐주고 인정해 주는  
여자, 관대하다고 해주는 여자들

좋아하고 남자는 결론적인 대화를  
좋아하고 자기 말에 '맞소 부인'이  
되어 주기를 좋아한다.

반면, 여자는 감성적이고 감동과  
사랑해주길 바라며 대화도 과정 중  
심이며 자기의 심정을 이해하는 말  
을 좋아한다.

특히,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  
자들은 살맛이 나는 것이다. 수시로  
'사랑해', '좋아해', '수고했어'  
의 말을 해보자. 여자의 얼굴이 되  
어 있을 것이다.

여자가 하는 말에 잘 경청하고 맞  
장구를 잘 치는 남자를 좋아한다.

또한, 여자는 3M(무드, 매너, 머  
니)에 약하니 3M을 잘 이용하  
면 여자는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 
쉽게 좋아진다.

여자에게는 사소한 것에 속상해  
하므로 하찮은 일, 말을 조심하고  
잔정을 받고 싶은 심리를 갖고 있  
다.

그리고, 남, 녀 모두 공통으로 좋  
아하는 것은 '칭찬'이다. 칭찬은  
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고 변화  
시키는 지름길이다.

우리는 살아가면서 칭찬하는 습  
관을 연습하여 활용해 보자.

성공적인 삶은 인간관계에 달려  
있는데 그 조건은 첫째, 웬만하면  
상대에 동의하라.

둘째, 수용해 주어야 셋째, 감사  
하면서 살아라.

넷째, 칭찬과 인정을 아까지 마  
라.

다섯째, 상호건설적이지 못한 비  
판을 하지 마라.

여섯째, '격려와 위로하라'를 실  
천하라.

자녀와 대화, 부부대화, 사교대화  
에서도 '칭찬'은 특효약의 역할을  
만드시 할 수 있다.

셋째, 대화할 때에서 바디랭귀지  
(몸말)를 잘 활용하면 대화는 물론

모든 스피치생활을 잘 할 수 있다.

일찍이 석가모니는 '무재칠시(無  
財七施)'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깨  
달게 하였다.

아무리 가난하고, 배움이 없다고  
해도 남에게 베푸는 것이 7가지가  
있다는 것이다.

'화안시' 점잖고 환한 얼굴로 대  
하기

'연시' 사람의 말, 감사의 말, 격  
려의 말 등으로 말하기

'심시' 마음을 열고 진실하고 정  
답게 대하기

'안시' 호의를 담은 눈으로 바라  
보기, '이시' '신시' '향시' 7가지  
를 말한다.

넷째, 욕구 파악하여 니드(Need)  
화법이다.

예민한 주제보다, 자기 위주보다  
상대가 원하는 대화, 듣고 싶은 말  
하여 상대와 공감하라는 것이다.

대화시에는 상대에 직, 간접적으  
로 상처 주는 일, 귀에 거스른 말  
투를 삼가야 한다.

대화는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어  
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.

매일 매일 대화한다고 상대를 등  
한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실  
패하는 자가 된다.

스�피치 노하우 잘 활용하여 호감  
받고 존경받고 성공적인 인간관계  
로 웃으면서 밝은 마음으로 성공,  
행복의 나날을 보내면서 살아가자.

김 양 옥

한국스�피치·음변협회 전북회장



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

디지털로 만나는 거장의 작품들



지난 27일(현지시간) 프랑스 파리에서 '모네, 르누아르...사람: 지중해로의 여행' 이라  
는 디지털 전시회 사전 언론 공개 행사가 열려 방문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.

함께 노래하는 '자연과 기후' 카니발 참가자들



지난 27일(현지시간)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'자연과 기후'라는 주제로 카니발이  
열려 참가자들이 한 여성의 아코디온 연주에 맞춰 노래하고 있다.

사설

전북도의 신천지 신도 전수 조사

전북도가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 
전수조사에 들어갔다. 행정 명령  
을 발동해 67곳의 시설을 폐쇄하  
고 집회 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 
신도 개개인에 대해 파악하기로  
한 것이다. 그것은 행보는 단연한  
수순이다. 신천지 신도들 상당수  
가 코로나 19의 보균자로 의심  
받고 있는 지금이다. 신천지 신도  
들 입장에서는 너무 몰아부친다  
싶겠지만 전북도의 전수조사 작업  
은 사람의 생명이 관련된 문제이  
다.

전북도는 엄정하고 냉정해야 한  
다. 새로운 확진 환자를 보면 신천  
지 신도이거나 그 가족인 경우가  
많다. 신천지와 상관없는 이들  
의 경우도 동선을 추적해보면 대  
구를 방문한 전력이 드러나고 있  
다. 그렇게 대구의 신천지교회와  
경북 청도의 대남병원이 코로나  
19의 진원지임이 거듭 거듭 확인  
되고 있다.

전북도는 신천지 신도들과 예비  
신도들 전체를 세밀하게 살펴야  
한다. 그들은 조직을 보호하고 내  
밀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전  
력이 있다. 따라서 그들이 하는 말  
을 끝끝내 다 믿어서는 안된다.

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신천지 신  
도의 총수는 1만1천135 명이다. 시  
단위는 전주 5490 명,군산 2065 명,  
익산 1576 명, 정읍 802 명, 김제  
200 명, 남원 158 명이다. 그리고  
군 단위로는 완주 381명, 고창 212  
명, 부안 124명, 임실 66명, 순창  
26명, 진안 19명, 장수 9 명, 무주  
7명이다. 이들 모두가 보균자라고  
단정해선 안되지만 그렇다고 건강  
한 상태로 볼 수는 없다. 이들 중  
에는 코로나 증상을 자각하고 있  
거나 속으로 열려하는 이들이 적  
지 않을 터이다.

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 조사  
는 철저해야 한다. 전담 공무원  
550 명에게 1만1천135 명에 대한  
전수조사는 힘들고 고된 작업이  
될 터이다. 그래도 전담 공무원들  
은 인격적이 되어야 한다. 짜증을  
내거나 화를 내서는 안된다. 피곤  
하다고 해서 조사 대상자들을 심  
문하듯 해서도 곤란하다. 그들의  
행적을 자세히 알아보되 인권을  
침해하지 말자는 당부이다.

신천지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 
있다고 해도 그들 개개인은 죄인  
이 아니기 때문이다.

지역 현안에도 시선을 주어야 한다

지금 시선이 온통 코로나 19 쪽  
에 쏠려 있다. 때가 때인지라 그것  
은 당연하다.

전국적으로 확진 환자가 하루밤  
새 수백수십 명 씩 쏟아져 나오고  
있는 판이다. 하지만 지역 현안에도  
관심을 나누어 가져야겠다. 지  
역 현안에 눈감고 있는 모습들이  
라서 말이다. 도내에는 지난해 못  
을 이루지 못한 주요 현안들이 산  
적해 있다. 언제쯤이나 제대로 추  
진될 것인지 희망의 빛이 있어야  
겠다.

도지사과 측근 브레인들이 이 어  
려운 때에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 
한다. 데스크만 지킬 게 아니고 자  
리에서 일어나 뛰어야 한다. 코로  
나 진압이 가장 시급한 당면 문제  
이지만 지역 발전 현안도 중요한  
문제이다. 그리고 여기 당부 할 것  
이 있다.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  
끌어 가는 게 아니다. 군산 시민이  
정부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서  
알 수 있는 것처럼 지역의 현안에  
정부가 눈길을 돌리도록 너나없이

함께 나서야겠다.

군산 경제가 무너진지 오래라 같  
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나날이다.  
현대중공업 조선소 재가동이 어렵  
다면 이제 기대를 접어야 한다. 일  
방적인 짝사랑은 때려치워야 한다  
는 지적이다. 다른 방도를 강구해  
전기자동차 생산을 서둘러야 한  
다. 2022년까지 미루지 말고 앞당  
기지는 이야기다. 지금 코로나 19  
가 기승을 부리는 때라도 밥 먹고  
사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.

지역 발전이 중심 주제가 돼야  
하는 이유는 분명하다. 우리 지역  
은 실업자들이 다른 광역 시도보  
다 많다.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는  
이들은 지역의 현실을 꼭 넓게 보  
아야 한다.

올해는 벼두부터 긴 터널 속을  
가듯 곤란하고 답답한 골칫거리  
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. 도지사  
를 비롯해 측근 브레인들의 책무  
가 막중하다.

비상한 행보로 도민에게 희망의  
빛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다.

전주매일 홈페이지 www.jjmaeil.com

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

"더 좋은 신문, 더 사랑 받는 신문,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"을 위해  
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 
'전북 최고의 신문'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 
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 
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.

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 
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 
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 
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

인간중심 · 도덕중심 · 지역중심

전주매일

